

차명진, 2년만에 선발 ... “욕심 버리고 ‘제구’에 최선”



“친구들 믿고 이닝에 신경 쓰겠습니다.” KIA 타이거즈의 차명진이 위기의 마운드에서 기회를 얻었다. 차명진은 9일 삼성라이온즈와의 원정경기

를 통해서 선발로 출격한다. 차명진의 선발 등판은 2019년 7월 4일 NC전 이후 처음이다. 순천효천고 출신의 차명진은 지난 2014년 우선 지명 선수로 KIA 유니폼을 입은 ‘기대주’다. 이어진 부상 속 근 복무까지 마치느라 데뷔 6번째 시즌이었던 지난 2019년 5월 16일에서야 프로 데뷔전을 치렀다. 그리고 4번째 등판이자 선발 두 번째 경기였던 5월 30일 한화전에서 5이닝 1실점의 호투로 애타를 기다렸던 프로 데뷔 첫승을 만들었다. 차명진은 2019년 선발 6경기 포함 9경기에 나와 4.36의 평균자책점으로 3승 1패를 기록하며 KIA 마운드의 새로운 자원으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 시즌에는 구원으로 단 한 경기에 나와 0.1이닝을 소화하는데 그쳤다. 올 시즌도 퓨처스리그에서 시작한 차명진은 멧덴과 브룩스의 이어진 부상에 마침내 기회를 잡았다. 차명진은 지난 5일 LG전에서 이닝을 소화하면서 위망업을 끝냈다. 이날 차명진은 유강남을 유격수 땅볼로 잡고, 라모스는 1루수 직선타로 처리했다. 그리고 김민성을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우면서 삼자범퇴로 올 시즌 첫 등판을 끝냈다. 차명진은 “오랜만에 등판한 것이라서 처음에 약

간 긴장했다. 첫 타자 던지고 나니깐 괜찮았다. 생각보다 괜찮았다”고 이야기했다. 무엇보다 착실하게 준비한 게 결과로 이어진 게 의미였다. 차명진은 “안 아프려고 재활에 더 신경쓰면서 준비했다. 서재은 코치님이랑 열심히 밸런싱도 잡고 최근에 퓨처스에 좋아서 콜업됐다”며 “초반에 너무 밸런스가 안 좋아서 마음이 그랬는데 잘 만들어져서 다행이다. 생각보다 몸 상태가 잘 올라왔고 잘 준비했다”고 말했다.

지난 시즌을 돌아보면 ‘욕심’에 스스로 무너졌다. 차명진은 “2019년을 관망해 보았고, 2020년도에 좀 더 해보자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너무 욕심을 냈다. 밸런스가 좋지 않았다. 느낌이 이상해서 조금 더 세게 던지려고 하다 보니까 더 좋지 않았다”며 “2019년에 스피드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구속 욕심도 있었다.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 밸런스가 무너졌다”고 돌아봤다. 잘 준비해서 돌아온 차명진은 ‘이닝’에 초점을 맞춰 선발 등판을 소화하겠다는 각오다.

차명진은 “2군에서도 선발이니까 긴 이닝을 소화하려고 했다. 긴 이닝을 끌어주는 역할을 하고 싶다.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닝’을 위해 제구에 우선 초점을 맞춘 계획이다. 차명진은 “긴 이닝을 가져가려면 제구가 중요하다. 제구가 돼야 긴 이닝을 끌고 갈 수 있으니까 그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힘으로 밀어붙이다가 제구 안 돼서 볼카운트 불리해지고 던져야 할 공을 못 던지는 것보다는 제구로 유리한 카운트 잡아놓고 전력 피칭을 할 생각이다. 또 제구가 되다 보면 자신감도 생겨서 구속도 올라올 것이다”고 언급했다. 더 치열해진 젊은 투수들의 경쟁 속 책임감도 무거워졌고, 경쟁심도 커졌다. “후배가 많더라”며 웃은 차명진은 “투수들이 어리다. 애들이 너무 잘 던진다. 후배들한테 안 밀려고 한다. 1군에 형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어린 선수들이 많으니까 선배라는 게 느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차명진은 다시 만난 ‘청소년 대표 3인방’이 승리의 주역이 되기를 바란다. 장종호 출신 유격수 박찬호와 신일고를 졸업한 3루수 김태진은 2013년 태극마크를 달고 함께 된 ‘청소년 대표 동기’다. 차명진은 “고등학교 때 셋이 청소년 대표를 갔었다. 친구들이 뒤에 있으니까 든든하다. 찬호가 ‘찬호버프’가 있다고 그랬다. 자기가 잘 잡아주겠다고 했다(웃음). 2019년에도 그렇게 찬호가 잘 잡아준 게 많다”며 “친구들 믿고 긴 이닝을 목표로 해서 잘 던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차명진



2022 카타르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스리랑카전을 앞둔 8일 축구 국가대표팀 파올루 벤투 감독이 경기도 파주 트레이닝센터에서 화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벤투호 약체 스리랑카전 플랜 B?

오늘 밤 월드컵 2차예선 ... 핵심 선수들에 휴식 줄 듯

파올루 벤투 축구대표팀 감독이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204위의 약체 스리랑카를 상대로 핵심 자원에 휴식을 주면서 ‘플랜 B’를 선택할지 관심이 쏠린다. 한국 대표팀은 9일 오후 8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스리랑카와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다섯 번째 경기를 치른다. 벤투호는 지난 5일 튀르키예를 상대로 황의조(보르도)의 멀티골에 이어 남태희(알사드), 김영권(감바 오사카), 권창훈(수원)의 릴레이 득점포가 터지면서 5-0 대승을 거뒀다. 4경기 연속 무패(3승 1무·승점 10·골 득실+15)를 이어간 벤투호는 2위 레바논(승점 10·골 득실+5)과 승점이 같지만 골 득실에서 크게 앞서며 H조 선두에 올랐다. 특히 한 경기를 더 치른 3위 튀르키예(승점 6)과 승점 4로 떨어져 한국과 레바논은 남은 두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최소 2위를 확보한 상태다. 결국 최종예선 직행권이 걸린 조 1위 자리는 오는 13일 한국-레바논 맞대결에서 결정이 난다. 다만 9일 한국이 스리랑카를 이기고, 같은 날 튀르키예가 레바논을 잡아준다면 벤투호는 수월하게 마지막 경기를 준비할 수 있다.

김세영 시즌 첫 승 나선다
LPGA 메디힐 챔피언십 개막

여자골프 세계랭킹 3위 김세영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메디힐 챔피언십(총상금 150만 달러)에서 타이틀 방어와 2021시즌 첫 승 사냥에 나선다. 메디힐 챔피언십은 10일(현지시간)부터 나흘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데일리시티의 레이커 머세드 골프클럽(파72·6천=551야드)에서 열린다. 이 대회는 2018년 시작해 리디아 고(뉴질랜드)가 초대 챔피언에 올랐고, 이듬해엔 김세영이 연장전에서 이정은, 브론테 로(잉글랜드)를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해엔 코로나19 여파로 대회가 열리지 못하면서 김세영은 2년 만에 타이틀 방어전을 치른다. 2년 전 이 대회를 시작으로 김세영은 시즌 3승을 거뒀고, 지난해에도 기세를 이어 메이저대회 KPMG 여자 PGA 챔피언십을 포함해 2승을 올리며 LPGA 투어 올해의 선수까지 차지했다. 도쿄올림픽 출전전의 주인공을 결정하기까지 이제 이 대회를 포함해 3개 대회만 남으면서 경쟁도 막판에 접어들었다. 여자 골프 태극마크는 이달 28일 기준 세계랭킹 15위 내 상위 4명에게 주어진다. 현재 랭킹으로는 1~3위인 고진영, 박인비, 김세영, 8위 김효주까지 출전이 유력한 상황이다. 18위 유소연, 20위 장하나, 22위 이정은 등이 뒤를 잇고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세트피스에 울고 웃은 광주FC

이한도 2골·헤이스 3도움
2경기 연속 결승골 허용

‘데드볼 스페셜리스트’들의 활약 속에 울며 K리그1에서는 ‘세트피스’가 핵심 키워드가 되고 있다. 8일 한국프로축구연맹에 따르면 108경기를 소화한 K리그1에서는 총 261골이 나왔다. 이중 세트피스 상황에서 나온 골은 22골로 경기 당 평균 세트피스 득점은 0.35골, 전체 득점의 14.6%를 차지했다. 이는 경기당 0.93골, 총 득점의 16.5%가 기록됐던 2015시즌 이후 최고 수치다. 이기제(수원), 윤빛가람(울산), 강상우(포항)가 ‘데드볼 스페셜리스트’로 활약하면서 세트피스 득점 바람이 일고 있다. 이기제는 직접 프리킥으로 2골을 넣었고, 프리킥 도움(2개)까지 4개의 세트피스 공격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다. 역시 두 차례 직접 프리킥으로 골 맛을 본 윤빛가람은 프리킥·코너킥 도움도 각각 하나씩 만들었다. 지난 시즌에도 7개의 프리킥(2개)·코너킥(5개) 도움을 기록했던 강상우는 올 시즌 3차례 코너킥 도움을 만들었다. 프리킥 도움까지 4개의 세트피스 공격포인트를 장식했다. 7라운드 인천과의 홈경기기를 통해서 뒤늦게 K리그 데뷔전을 치렀던 광주 외국인 공격수 헤이스도 매서운 발끝을 자랑한다. 그는 2개의 프리킥 도움과 함께 1개의 코너킥 도움을 올리면서 세트피스 공격포인트 순위에서 이름을 올렸다.

‘세트피스 전문 골잡이’로는 포항 송민규가 눈에 띈다. 송민규는 올 시즌 코너킥 도움을 받아 3골을 터트렸다. 전체 7골 중 3골을 세트피스 상황에서 기록하면서 ‘세트피스 전문 골잡이’로 눈길을 끈다. 수원FC의 조유민도 코너킥 상황에서 3골을 넣으면서 세트피스에 강한 면모를 보여줬다. 이어 주민규(제주), 한교원(전북), 불투이스(울산)도 세트피스 도움을 받아 2골을 만들었다. 광주 수비수 이한도도 2골을 기록해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이한도는 강원FC와의 11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헤이스의 프리킥을 받아 헤더로 골을 넣어 1-0 승리의 주인공이 됐다. 이한도는 이 골로 올 시즌 수비수 첫 MVP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이한도는 앞서 3라운드 대구 원정에서는 김중우의 코너킥 도움을 받아 득점을 만들었다. 헤이스와 이한도로 세트피스 상황에서 웃었던 광주지만 이기제와 송민규에 일격을 당하며 세트피스 상황에서 땅을 치기도 했다. 광주는 지난 18라운드 수원삼성과의 홈경기에서 경기 종료 직전 터진 이기제의 프리킥 골에 3-4 재역전패를 당했다. 이어 19라운드 포항원정에서는 0-0으로 맞선 후반 43분 코너킥 상황에서 높게 뛰어오른 송민규를 막지 못하고, 헤더 결승골을 허용했다. 이기제와 송민규의 골처럼 ‘세트피스 극장골’도 눈에 띈다. 올 시즌 세트피스 38골 중 12골(31.6%)이 후반 31분 이후 만들어졌다. 그리고 38골 중 16골은 결승골로 기록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해트트릭’ 전남 발로텔리, K리그2 15라운드 MVP

‘해트트릭’으로 팀의 선두탈환을 이끈 전남드래곤즈의 발로텔리(사진)가 15라운드 MVP에 선정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하나원큐 K리그2 2021 15라운드 베스트 11을 발표했다. 서울이랜드와의 홈경기에서 세 골을 터트리면서 3-0 승리의 주역이 된 전남 발로텔리가 MVP의 영예를 안았다. 발로텔리는 전남 3분 문전 혼전에서 흐른 공을 잡아 오른발 슈팅을 날리며 첫 골을 장식했다. 후반 10분에는 김현욱의 패스를 받아 페널티 아크 왼쪽 부근에서 오른발로 두 번째 골을 터트렸다. 그리고 후반 40분에는 장성재와 좋은 호흡을 과시하면서 왼발로 세 번째 골을 기록하며 해트트릭을 완성했다. 올 시즌 K리그에 재입성한 발로텔리는 첫 해트



발로텔리

트릭을 기록하며 15라운드 MVP 영예를 안았고, 전남은 이날 승리로 다시 리그 선두 자리에 올라섰다. 발로텔리와 함께 3-0 무실점 승리를 이끈 골키퍼 박준혁, 수비수 박찬용 그리고 미드필더 김현욱까지 전남에서는 4명이 베스트 11 명단에 포진했다. 한편 이번 15라운드 베스트 매치로는 부산과 경남의 경기가 선정됐다. 지난 6일 부산 구덕운동장에서 열린 경기에서 부산이 전반전 2골을 넣었지만, 경남이 후반에 3골을 몰아치면서 3-2 역전승을 연출했다. 짜릿한 역전승을 거둔 경남은 베스트 팀이 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